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스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들을 씻으셨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쓰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지켜보며 크리스천은 보기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발견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읽으려고 하지 않지만, 당신의 삶은 책을 읽듯 읽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의 각 장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지켜 볼 것입니다. 당신은 믿는 자들 *에게* 가 아니라 믿는 자들 *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생활 양식에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게 될지 않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삶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합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면서, “나는 기독교에 해답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없는 것같구먼”하고 말합니까?

### ***사람들이 당신을 자세히 살피고 관찰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당신의 말, 즉 당신이 말하는 것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함이라” (마 12:34).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당신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경우에 당신이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수 없이 우리가 한 말을 즉시 취소하기 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칠고 짜르는 것같이 한 말을 다시 친절하게 말하기 원합니다. 내가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별 것 아니지만, 내가 집 안에서 가족들과 말하는 것이나,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유심히 관찰하는 또 다른 것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때 당신이 휘파람을 불며 행복해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갈 때는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을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주시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모든 일들에 압박을 느끼고 일들이 어려워질 때 당신은 웃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와 직장에서 각각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으로써 사업을 해야합니다. 당신이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면, 그가 지불하는 임금을 위해 당신은 하루의 일을 충분히 해야합니다. 그는 당신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당신은 일해야 할 시간에 서성거리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그는 그것을 잘 주의하여 봅니다. 당신이 중간

휴식시간을 더 오래 가지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화장실을 다닌다면 좋은 증거를 주지 못합니다.

당신은 말하기를,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한 남자가 있는데, 그는 무르익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고용주의 시간에 그 사람에게 주님을 전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일이지요"라고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은 주님께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상사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상사는, "저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면, 나는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온전히 근실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나의 행동과 반응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합니다. 내가 같은 동료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만큼 나의 상사의 영혼구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점심 시간이나 퇴근 후에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일할 때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또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니 정직한 하루의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에 어슬렁거리며 속이지 마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그것은 **필레오(phileo)**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당신을 악한 의도로 이용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면, 그것은 **아가페(agape)**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인간적 사랑보다 더 고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도 되돌려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주는 그러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게 하십시오. 오늘날의 세상은 진정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되돌려 받으려 하지 않고 기꺼이 주는 사랑의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떤 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의심하거나 투덜거리거나, 불만과 불평의 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은 기쁨의 영의 모범이 되십시오!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런 사랑과 확신과 신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이 무거운 압박감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럼 절망적이거나 패배한 태도로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 형제여,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가 가진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염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세상은 슬픔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슬픔과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화평과 확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써 나는 모든 상황을 주님이 해결하시리라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큰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영을 소유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믿음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두통이  
얼마나 오래 가면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그치고 아스피린을  
복용할 것입니까? 당신의 믿음이 약해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고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는 다시 낙담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  
가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 오늘 아침에 자동차 엔진을 켜는데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무관심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작은 일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대단히 존경하는 디오게네스의 철학을  
읽고 그것에 매혹되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씻는 물통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을 소유했지만, 그는  
비참했습니다.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마침내 디오게네스와 직접  
만났습니다. 알렉산더는 너무나 흥분하여, “디오게네스,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나는 내 삶을  
다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알렉산더에게 그것을 주면서, “이것을  
당신의 주머니에 넣고 두 주 동안 가지고 다니시오”라고 말했  
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말을 듣고 격노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  
입니까! 두 주일 동안 비린내를 풍기면서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디오게네스가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기를,

“창피스럽구만! 그런 대단한 헌신이 냄새나는 두 마리 생선으로 무너지다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하기를,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작은 일을 주시면, 우리는 말하기를, “오 아니에요,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런 것은 못해요”라고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머리를 흔들시면서, “창피스럽구만, 그런 헌신이 배터리가 죽은 것으로 무너지다니”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리라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이 보기에는 길이 없고 너무나 막막하고,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싫어 합니다. 공해는 너무나 싫습니다. 스모그로 자욱한 하늘을 쳐다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염으로 가득찬 강물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물과 공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오염되어 타락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나는 사람이 오염된 물과 공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염되어 타락한 마음은 인류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되어 타락한 세상에 당신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떤 것이든 가능한 사회 가운데서 당신은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회적 관습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절대적 결심이나 보편적 법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사회와 관습에 대하여 상대적입니다. 만일 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더 이상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의 관습이 타락했기 때문에 당신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대학생들이 대학교의 남여 공용 기숙사에 함께 살거나, 혼전 성 관계를 시도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디모데전서 5:22). 당신의 삶을 정결케 지키고, 당신의 몸을 정결케 지키고, 당신의 마음을 정결케 지키십시오 - 하나님을 위해! 다른 모든 학생들이 헤어날 수 없는 부도덕의 부패에 빠져들어 썩어 간다할지라도 아무 상관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압력은 너무나 강합니다! 육신은 너무나 약합니다. 기회는 너무나 많고 유혹은 부지기수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대한 해답은, 당신은 아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을 압니다.

본보기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그 말씀에 유의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을 읽으므로 당신은 강건해집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 밖에서 능력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영적 체험들이 당신을 주님 안에서 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영적 체험들이 당신의 영적 성숙과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영적 체험들로 인해 그런 혼동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한 체험을 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영을 분별한다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다거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들의 체험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체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굉장한 체험들을 한 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아! 참 모를 일이야... 그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는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체험이 영적 능력에 대한 기준은 아닙니다. 당신은 체험들로 인해 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하게 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일서 2:14).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사람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빈혈 또는 약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공부의 결핍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 자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체험으로는

자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필요한 견고하고, 실질적인 성장을 하게 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십시오. “주의 성도들아, 주님의 탁월한 말씀 안에 당신의 믿음을 위한 굳건한 반석이 놓여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게 되십시오! 성경 말씀 안에서 당신이 얻는 혜택은 **권면**과 **교리**입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진실이고 올바른 길인가를 당신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그에 더하여 진리와 도를 행하도록 당신을 격려해 줍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옳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나,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처음 주님께로 왔을 때 - 즉,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으로 참신하게 꽃 피었을 때 - 당신은 하루 종일 노래 부르며 다니곤 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사랑의 노래들을 지어 부르곤 했습니다. 그 때는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노래하는

은사와 주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당신은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저, 그들이 주일 아침 예배에 나에게 노래 부르라고 한번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께 노래를 부르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합니까? 당신은 주님께 노래 불러야 합니다. 사람이 듣든지 않듣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 노래 부릅니다. 정말 멋진 것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고마워 하십니다. 때때로 나는 사람을 위해 노래하는데, 그는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노래할 때면, 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나는 주님께 노래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십시오 (시편 33:3).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에베소서 5:19).

당신이 사람 앞에서 주께 노래할 때, 듣는 사람도 또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저 사람을 즐겁게하기 위해서만 노래 부른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를 알기를 원해. 내가 이 노래에

얼마나 멋진 진동음을 넣을 수 있는지 말야. 나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음악가인지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 그러면 사람들은 바로 그것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훌륭한 음악적 재능에 대한 인상은 갖겠지만,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데로는 전혀 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당신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31). 당신 속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삶 가운데 시작하신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디모데는 분명히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서신에서 바울은,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되살아 나게 하라”** (디모데후서 1:6) 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되살아 나게 하라! 때때로 우리는 조금 식어지거나 김빠진 상태가 됩니다. 주님께 그전의 사랑의 표현과 찬양을 다시 불일듯 되살아 나게 하십시오.

우리들은 잡지와, 신문, 텔레비전과 다른 매스컴을 통해 모든 것에 대해 조금씩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 다소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핵 과학과 의학, 정치, 다이어트 등 모든 것에 대해 조금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분야는 넓어 졌지만 깊이는 없습니다. 영적 깊이는 묵상을 통해 개발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은 거의 잊혀진 방법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거의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날 아침 옷장 위에 놓아둔 경종 시계가 울리기 전에 주님께서 창문 밖에 경종 시계를 놓아 두셨습니다. 한 앵무새가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 앵무새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의 찬양을 주님께 노래하여라. 앵무새야, 너의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날 아침에 여유 시간이 있어서 묵상할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소리와 함께,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과, 선하심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의 본으로서의 나의 삶에 관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 당신을 위하여 본이



되도록 그러한 부분에 저에게 힘주시고 도와 주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당신의 삶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순결과 믿음과 옳은 행실과 깨끗한 말과 당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데 전심전념 하십시오.

바울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결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한 너희 자신도 구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잘 표시해 놓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이는 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다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7:2).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심이 없이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번 하나님께 어떤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시 주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조금 심으면, 당신은 조금 거둘 것입니다. 당신이 많이 심으면, 당신은 많이 거둘 것입니다. 당신이 심는대로 당신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7). 그것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입니다. 당신이 엄청난 수확을 원하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당신은 옥수수 몇개만 원하십니까? 그러면 옥수수 알 몇 개만 심으십시오.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너무나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운다면, 나는 내 자신의 필요를 돌볼 시간이 없어진단 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한 남자가 폭설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단지 몇 발짝 앞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심한 눈보라 치는 가운데 여러 시간을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눈 속에 비틀거리며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너무 지쳤어! 나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 내가 잠시 눈을 감고 쉬면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거야”라고 했습니다. 그 치명적인 무기력함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그가 걸려 넘어진 물건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눈을 치우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몸에는 맥박이 있는 것을 감지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오, 나는 그를 도와야해. 나는 그를 살려야해!” 그는 초인간적인 힘으로 일어서서, 그 사람을 어깨에 올려놓고 다시 눈보라 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지 않아 한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구하면서 그 자신도 살아 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우리 자신도 도움을 받습니다.

당신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또 당신이 이런 일들에 주의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본이 되도록 부르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시 돌려 도와 주실 것입니다.